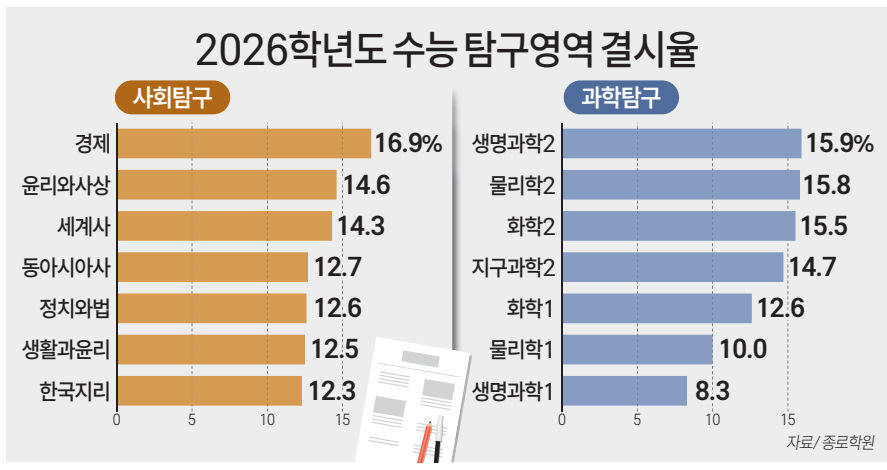
수능 사탐런에 결시율 변수까지… 성적 예측 어려워진다

사탐런에 과탐 접수건 28% 감소
탐구영역 과목별 결시율 편차 커져
등급 불확실성에 유불리 주의해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교시 탐구영역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결시율 편차에 '사탐런' 현상까지 맞물리며 과목 간 유불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응시 기반이 줄어든 과학탐구는 실제 응시 규모와 성적 분포에 따라 등급 경계가 달라질 수 있어 수험생들의 성적 예측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결시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경제(16.9%)로 나타났다. 이어 윤리와사상 14.6%, 세계사 14.3%, 동아시아사 12.7%, 정치와법 12.6%, 생활과윤리 12.5%, 한국지리 12.3%, 세계지리 10.4%, 사회문화 9.0% 순이었다.

과학탐구에서는 Ⅱ과목을 중심으로 결시율이 높았다. 생명과학Ⅱ가 15.9%로 가장 높았고, 물리학Ⅱ 15.8%, 화학Ⅱ 15.5%, 지구과학Ⅱ 14.7%였다. Ⅰ과목은 화학Ⅰ 12.6%, 물리학Ⅰ 10.0%, 생명과학Ⅰ 8.3%, 지구과학Ⅰ 7.5%로 집계됐다. 탐구영역은 사회문화·세계지리·물리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등 5개 과목을 제외한 12개 과목의 결시율이 국어(10.5%), 수학(9.6%), 영어(9.9%)보다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사탐런에 따른 응시자 구성 변화까지 겹치면서 탐구 과목별 성적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수능 사회탐구 과목별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11.4% 증가한 반면, 과학탐구는 28.3% 감소했다.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현상이 확대되면서 과학탐구의 응시자 기반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결시율이 높았던 과목들은 올해 수능에서도 상대적으로 접수 인원이 적었다. 사회탐구에서는 경제 선택 인원이 8360명으로 가장 적었고, 동아시아사 2만 2524명, 세계사 2만3536명, 정치와법 3만 1859명 순이었다. 이들 4개 과목은 지난해 수능에서 모두 12% 이상의 결시율을 기록했다.

과학탐구는 화학Ⅱ 선택 인원이 453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지구과학Ⅱ 4632명, 물리학Ⅱ 5799명, 생명과학Ⅱ 7075명이었다. 지난해 모두 14% 이상의 결시율을 기록한 과목들이다. 특히 접수 인원이 5000명에 못 미치는 화학Ⅱ와 지구과학Ⅱ는 지난해 수준의 결시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실제 응시자가 각각 3800명대와 3900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

응시자 규모가 작은 과목은 일부 수험생의 점수 변화가 등급컷 및 표준점수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과목별 접수 인원뿐 아니라 결시자를 제외한 실제 응시자 규모와 점수 분포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응시자가 적은 과목은 실제 응시 인원과 성적 분포에 따라 등급 및 표준점수 형성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과목 간 유불리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탐구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한 자연계열 수험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수능 직후 가채점 결과만으로 탐구영역 등급을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탐구영역은 과목별 응시자 구성과 점수 분포에 따라 실제 채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가채점 점수만으로 등급이나 표준점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탐구영역은 수능 직후 가채점 결과만으로 성적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실제 성적이 발표될 때까지 등급과 표준점수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은 일정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학교 적응 도와드려요" 전환기 특강 운영

서울교육청, 예비 초중고 학부모 교육
온·오프라인으로 학습환경·진로 설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 전환을 앞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습 설계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과 20일 '전환기 대비 학부모 교육'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7학년도 초·중·고 신입생 학부모와 전환기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면 교육은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1층 대강당에서 열고, 비대면 교육은 서울시교육청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18일에는 배우 정은표가 '가정과 학습,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주제로 대면 강연에 나선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20일 온라인 강연은 한양대 조병영 국어교육과 교수가 맡는다. 조 교수는 '잘 읽는 아이가 잘 배운다: 전환기 독서의 혜택'을 주제로 독서와 학습의 관계를 다룬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과 자녀의 진로·학업 설계 방법을 설명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가정에서도 진학 이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서울대, UAE와 차세대 '국제 리더' 양성

국제 리더십 교육·연구 협력 체결
두바이 리더십 연구 공동진행 등

서울대학교가 아랍에미리트(UAE)의 고위급 공공 리더십 교육기관과 손잡고 현지 관료 교육과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두바이의 행정 혁신 사례를 연구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연구 성과를 해외 대학과 학계에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서울대가 UAE 모하메드 빈 라시드 리더십 센터(MBRCLD)와 국제 리더십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MBRCLD는 UAE 총리실 직속 리더십 전문 교육기관이다. 정부와 공공·민간 분야의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운영하고, 국가 전략 수립에 필요한 고위직 역량 강화와 국제 공동연구 등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 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양국 간 교육 협력의 일환이다.

서울대와 MBRCLD는 두바이의 행정 운영체계와 혁신 사례를 분석하는 '두바이 리더십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UAE의 국가 운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리더십 및 행정 경험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연구 결과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최고경영자·고위공직자 대상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UAE의 핵심 관료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공공정책과 리더십 분야의 교육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교육기관과 학계에도 공유한다. 교육부는 공동 연구 결과물을 세계 90개국 500여 개 대학원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대 김준기 기획부총장은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전환기 속 복잡한 과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차세대 국제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대학서 만든 미래자동차·로봇 한자리에

오늘부터 나흘간 '2026 코-쇼' 개최
인공지능 등 18개 분야 67개 대학 참여

대학의 첨단분야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기술 역량을 겨루는 행사가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늘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제3회 코-쇼(CO-SHOW)'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CO-SHOW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단 협의회가 주관한다. 대학 간 교육과정과 자원을 공유하는 COSS 사업의 교육 성과를 일반인에게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당 사업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18개 분야에 걸쳐 전국 6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지능형 로봇 등 18개 첨단분야의 교육 성과를 소개하고, 22개의 대학생 경진대회가 이어진다.

주요 대회로는 AI 모델 개발 경진대회인 'AIM 챌린지', 미래자동차 분야 자율주행 경진대회 'AutoRace2026', 지능형 로봇 제작 경진대회 'SHARE 챌린지' 등이 있다. 웨이퍼 이송 로봇 제작과 4족 보행 로봇 경진대회, 드론 관련 대회 등도 진행한다.

일반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회로 제작과 반도체 제조장비 체험, 레이어드 무드등 만들기를,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보조배터리 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김수정 기자

국민대

QNX 센터 코리아 설립

국민대학교가 QNX의 개발 환경을 대학 교육과정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모빌리티·로보틱스 실무 인재 양성을 본격화한다. 국민대는 지난 4일 글로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기업 QNX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거점인 'QNX 센터 코리아'를 설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QNX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QNX는 블랙베리 리미티드의 사업부로, 자동차와 의료기기 등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에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국민대는 국내 처음으로 QNX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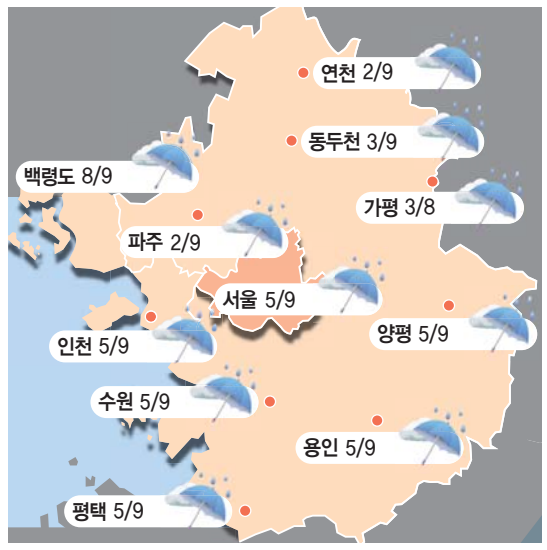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15 | 해짐 / 17:19

11월
18일 (水)
음력 : 10월 10일

수도권 날씨
5 ~ 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미·중·러 정상회담 앞 '젠슨 황 스캔들'…시진핑 정상외교에 '암초' /사진 뉴시스

▲日정부 "러 항공기 추청 항공기 2대 영공 침범, 용납못해…엄중 항의"

▲트럼프 또 띄운 북미회담, 이번엔?…한미 당국 기존입장은 '어렵다'

▲中 검색엔진 바이두 3분기 순익 2800억원…"AI사업 호조 흑자 전환"

▲美민주 경선 유권자 83% "대선후보, AI 업계 선거자금 거부 중요

▲"이란 댐 등 수자원 개발 사업 군사력 증강 목적 추진 가능성"